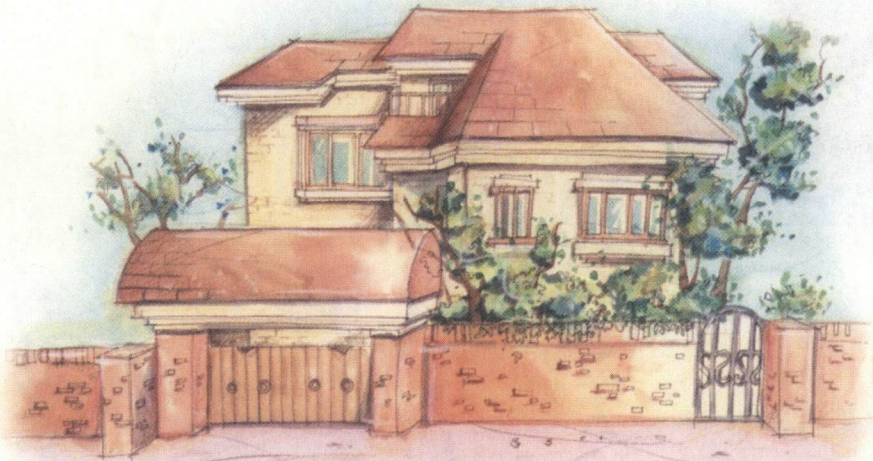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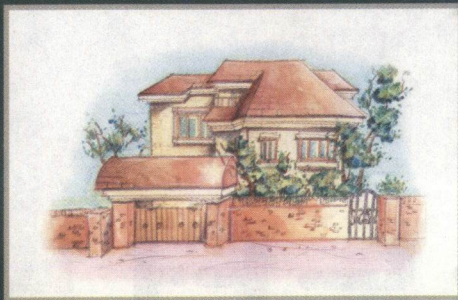
2002 · 가을

제42호



- 3 ● 여는 말 |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활동가로...
- 4 ● 여기는 상담실 | 2002년도 상반기 상담현황 분석
- 10 ●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 데이트 성폭력,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 14 ● 성문화 읽기 I | 성관계 욕(complain)하기-성관계와 성폭력
- 17 ● 성문화 읽기 II | 월드컵, 축제, 여성 그리고 폭력
- 20 ● 성문화 읽기 III | 모성보호를 위한 작은 배려
- 22 ● 나눔터 좌담 | supporters-사건지원과정에서 그녀들이 하고 싶은 말
- 28 ● 나눔터 학술 |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 34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기쁨 하나 | 숨은 후원자, 멋진 페미니스트-콘웨이 교수...
- 36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기쁨 둘 | 열린터에서 만난 삶의 향기
- 38 ● 여성발언대 | 정조팬티 강요하는 사회
- 42 ● 남성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지침
- 44 ● 새로운 책 소개 | 지리산에서 온 편지
- 45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표지그림 : 상담소의 새 보금자리 스케치입니다

그린이 : 오신순옥



바람속



빗속으로 걸어가는...



어둠속의 희망



웃는 꽃



행복한 나라/우리동네

열림터 친구들의 그림입니다.
 그림에 붙여진 이름처럼,
 바람속, 웃는꽃, 빗속으로 걸어가는...,
 어둠속의 희망, 행복한 나라/우리동네...
 태풍의 흔적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도,
 상처에 얽은 가려운 딱지를 참아내는 이들에게도,
 평안한 힘, 건져올릴 수 있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활동가로 다시 시작하며...

늘 상담소 식구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번엔 소장님과 부소장님의 역할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여년간 '삶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30대를 상담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또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여성(생존자)들이 고통과 절망속에서도 치유에의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찾아가도록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활동을 하며 여성운동의 보람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미경(본 상담소 소장), 장운경(본 상담소 부소장)

동시에, 성폭력이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상담소 초기에 비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가 새롭게 인식되어 가는 변화들을 체감하면서 운동에 의한 사회변혁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동안 잠시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다시 소중하고 행복한 활동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추방운동은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도 제·개정되었고,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성폭력상담소와 8개의 피해자보호시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변해온 성폭력 추방운동은 이제 그 내적인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상담소의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커다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일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담소가 해온 활동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깊은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담자 지원의 내용과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문화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재규정하고,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활동, 그리고 국내·외 각 상담소, 관련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상담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담소가 있게 한 내담자, 열림터 식구들,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후원회원, 회원, 자문위원, 이사, 상근자들께 다시 한번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럿이 함께한다면 성폭력 없는 살맛나는 세상,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희망의 씨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기를 상담실

본 상담소는 2002년에 <내담자 지원강화>, <상담의 전문성 강화 및 여성주의 의식 강화>, <성폭력피해자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내담자 지원 중재시스템 개발> 등을 활동목표로 정하고 상담 및 지원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여성부 '위민넷 사이버상담' 성폭력분야 시범실시, 사이버상담 매뉴얼 제작,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의와의 간담회, 성폭력수사과정 경찰 직무 교육, 사법연수생 연수교육,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회의의 참여,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활동, 토요일상담을 통한 법정지원, 외국인여성 피해상담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02년도 상반기 상담현황 분석

조중신(본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1. 전체 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2년 6월 30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25,359건(37,146회)이다. 2002년에는 1,632건(2,216회)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 중 82.1%인 1,347건(1,897회)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었으며, 285건(319회)은 기타(스토킹, 성관련상담, 혼인빙자 간음 등) 상담이었다.

<표1 상담현황>

| 기간 | 상담회수 | 상담건수 | 성폭력피해상담 |
|-----------------------|---------|---------|----------------|
| 1991. 4 - 2002. 6. 30 | 37,146회 | 25,359건 | |
| 2002. 1 - 2002. 6. 30 | 2,216회 | 1,632건 | 1,347건(1,897회) |

| 2002 상반기 전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216(회) | 392 | 293 | 377 | 342 | 420 | 392 |

2. 2002년 상반기 상담현황

1) 성별/연령별 상담분석

2002년 성폭력 피해 상담의 성별분포는 여자가 1,317건(97.8%), 남자가 30건(2.2%)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성인인 경우가 764건(56.7%), 청소년 260건(19.3%), 어린이 199건(14.8%), 유아 94건(7.0%), 미상 30건(2.2%)으로 나타났다.

<표2 성별, 연령별 피해자 상담현황>

(단위: 건(%))

| 연령별 성별 | 성인 (20세 이상) | 청소년 (19세-14세) | 어린이 (13세-8세) | 유아 (7세 이하) | 미상 | 총계 |
|-----------|----------------|------------------|-----------------|---------------|---------|------------|
| 계 | 764(56.7) | 260(19.3) | 199(14.8) | 94(7.0) | 30(2.2) | 1,347(100) |
| 남성피해 | 15 | 6 | 6 | 3 | 0 | 30(2.2) |
| 장애인피해 | 10 | | 3 | | | 13(1.0) |

※ 남성피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21건, 여성 가해자가 9건이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추행(항문성교 포함), 성희롱, 음란전화 등이었다.

2) 피해유형별 상담분석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549건(40.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460건(34.1%), 성희롱 224건(16.6%), 특수강간 36건(2.7%), 강간미수 36건(2.7%), 음란전화 26건(1.9%), 사이버성폭력 12건(0.9%), 몰래카메라 4건(0.3%)순으로 나타났다.(분류 중 특수강간은 야간침입, 흥기소지, 강도강간, 윤간 등을 지칭한 것)

<표3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유형 | 강간 | 강간미수 | 특수강간 | 성추행 | 성희롱 | 음란전화 | 사이버성폭력 | 몰래카메라 |
|-------|--------|-------|-------|--------|--------|-------|--------|-------|
| 총계 | 460 | 36 | 36 | 549 | 224 | 26 | 12 | 4 |
| (100) | (34.1) | (2.7) | (2.7) | (40.8) | (16.6) | (1.9) | (0.9) | (0.3) |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분석

성폭력 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1,331건(98.8%), 여성이 16건(1.2%)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성인 1,016건(75.4%), 청소년 141건(10.5%), 어린이 55건(4.1%), 유아 13건(1.0%), 미성 122건(9.0%)으로 미성년자가 전체의 15.6%(209건)를 차지했고, 이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68건으로, 전체 미성년가해자의 3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 피해 상담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1,029건(76.4%), 모르는 사람이 259건(19.2%), 미상이 59건(4.4%)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중, 직장내 관계에 의한 피해가 297건(22.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친족내가 160건(11.9%), 학교/학원내가 156건(11.6%), 데이트상대 134건(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4 피해자 / 가해자 관계>

(단위: 건(%))

| 부 | 친족 | | | 직장내 | | 데이트 상대 | 동네 사람 | 서비스 제공자 | 성직자 /신도 | 학교 /학원내 | | | 기타 | 아는 사람 계 | 모르는 사람 | 미상 | 총계 |
|----|-----|----|-----|--------|--------|--------|-------|---------|---------|---------|-------|--------|--------|---------|--------|-------|----|
| | 친인척 | 남편 | 상사 | 동료 /고객 | 교사 | | | | | 동급생 | 기타 | 교수 | | | | | |
| 55 | 102 | 3 | 225 | 72 | 134 | 91 | 44 | 1 | 60 | 91 | 5 | 152 | 1,029 | 259 | 59 | 1,347 | |
| | | | | | (10.0) | (6.8) | (3.3) | (0.1) | (4.4) | (6.8) | (0.4) | (11.3) | (76.4) | (19.2) | (4.4) | (100) | |



3. 2002년 상반기 상담의 특기할 사항

1)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빈발

성폭력으로 문제제기 하거나 고소한 이후, 가해자측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측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로는 ①유아성추행 피해자 부모가 역고소되어 100만원 선고된 사건 ②집주인의 성추행을 인터넷에 올린 여대생이 고소당한 사건 ③가해자측에서 강간사실을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자 동생이 사과 요구문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④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한 여사원이 고소당한 경우 ⑤학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한 학우들과 선배를 고소한 건 ⑥성직자의 신도 성폭력을 문제제기한 남신도를 가해자의 추종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 재판 중인 사건 등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을 떠나 사회적 공익이라는 점이 대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일반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법조인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월드컵 기간 중 피해 사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6월 동안, 경기 관람 중 혹은 응원 후 피해를 입은 사례가 9건 접수되었다. 같이 관전을 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2차로 술을 마시다 직장 상사·동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축제분위기에 같이 응원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었다. 마음놓고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들에게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정부가 성공적인 개최라 자부했던 월드컵의 또 다른 실상이다.

3) 채팅으로 만난 사람에 의한 피해

인터넷이 널리 활용되면서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51건). 피해자는 중·고생, 대학생, 직장인이 다수인데 채팅 후 만났다가 비디오 방, 여관, 가해자 집 등으로 끌려가 강간피해를 입고 비디오 촬영, 폭행, 협박, 금품갈취, 지속적 성관계 요구,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었다.

일회성인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신분을 속이고 만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지속적인 경우 화간을 주장하여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해자를 알게된 동기에 대해 불순하게 여기는 등 수사관들의 통념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4) 14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 문제 심각

2002년 성폭력 피해 상담 중 209건이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의 15.6%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가해자 141건, 어린이 55건, 유아 13건이다. 특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어 또래끼

리의 성폭력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7세 남아 여러 명이 5세 여아를 추행, 초등학교 4학년 남아가 2학년 여아를 추행, 초등학교 2학년 여아 여럿이 동급생 여아를 추행, 유치원 원아 여러 명이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추행, 중학교 1학년 남아가 6세 남아를 추행한 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형사상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사 요구 혹은 학교에 징계를 촉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학교내 사례를 의뢰하는 교사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에 고심하게 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 교육 필요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해자 부모의 인식 결여로 실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가해자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해자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표5 피해자 / 가해자 연령>

<단위: 건(%)>

| 피해자 연령 | 가해자 연령 | | | | | |
|--------|-------------|-----------|---------|---------|----------|------------|
|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미상 | |
| 성인 | 701 | 12 | | | 51 | 764 |
| 청소년 | 168 | 67 | | | 25 | 260 |
| 어린이 | 102 | 40 | 39 | 0 | 18 | 199 |
| 유아 | 34 | 22 | 16 | 13 | 9 | 94 |
| 미상 | 11 | | | | 19 | 30 |
| 총계 | 1,016(75.4) | 141(10.5) | 55(4.1) | 13(1.0) | 122(9.0) | 1,347(100) |

5) 군대내 성희롱 사건 지원

2001년 문제시된 군대내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관련문제가 대사회적으로 여론화되었고, 군대내 관련 구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군대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군수사국에 전담 여성수사관을 배치하고, 군대내 성희롱예방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가 문제제기 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모 부대에서 회식 후 부하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추행한 사건의 경우, 부대내에 문제제기가 되자마자 가해자를 전보발령 시키고 징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의 군대내 성희롱에 대한 여성운동의 성과를 실감하게 하였다.

4.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지원체계의 활성화

1) 온라인 상담의 증가

2001년 5월 게시판 상담을 개설한 이후, 2000년에는 272회, 2001년에는 1,039회, 2002년 상반기 590회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현재 전체 상담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익명성과 개방성, 쌍방향성의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 상담은 공개·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상담, 채팅 상담으로 구분되는데 게시판 상담은 타인도 읽어들 수 있으므로 비슷한 피해자가 공감과 격려의 글을 올려주



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자세한 내용을 표현할 수 없어 심도 깊은 상담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계시관 상담 내담자에게는 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메일상담, 전화상담, 면접 심리상담, 토요법률상담을 권유하고 있는데 내담자 개개인의 형편상 계시관 상담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9명의 인터넷 상담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담자에게는 여성주의적 관점은 물론 사이버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하겠다.

<표6 상담방법>

(단위: 회)

| 상담횟수 | 상담건수 | 재상담 | 면접상담 | 서신상담 | 온라인상담(채팅상담) | 야간상담 |
|-------|-------|-----|------|------|-------------|------|
| 2,216 | 1,632 | 584 | 159 | 4 | 590 (7) | 382 |

2) 위민넷 사이버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신설

2002년 5월 13일부터 본 상담소는 여성부 위민넷 사이버상담 성폭력분야를 위탁받았다. 7월말 현재 25건이 접수되었고, 성폭력 피해 문의에 대한 단답식 질의응답의 수준을 넘어 상담자/내담자 간의 심도있는 교류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실시간 채팅상담을 일정기간 실시하고 나서 채팅상담의 특성과 유의점을 검토, 채팅상담 매뉴얼 제작과 수퍼비전, 사례연구가 수반될 예정이다.

3)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활성화

본 상담소에서 상반기에 피해자 치료비로 지원된 사례는 11명 총 2,076,490원으로 치료내용은 응급실, 산부인과, 상해로 인한 정형외과, 치과치료 및 정신과, 소아정신과와 심리검사 비용 등이었다.

여성부에서는 2001년도 1인당 178,000원이던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를 2002년도에는 1인당 치료비 296,000원, 진단서 발급비 100,000원씩 45명분을 지원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치료와 증거확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 경찰기관의 고소사실 확인서, 상담기관의 면접상담 후 보증서 제출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에서는 성폭력피해에 의한 치료 뿐 아니라 입소 중 발생하는 제반 질병에 대하여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의료비후원기금을 조성하거나 피부과, 내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표7 상담의 후속조치>

(단위: 회)

| 타기관연계 | 병원연계 | 치료비지원 | 경찰연계 | 토요법률상담 | 고소건수 | 법적지원 | 자료지원 |
|-------|------|-------|------|--------|------|------|------|
| 69 | 41 | 11 | 20 | 48 | 103 | 50 | 51 |

4) 법적 지원의 성과

고소이후 법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아짐에 따라 고소장 작성, 경찰연계, 수사 동행, 재판 동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일지 송부, 비공개재판 신청, 진정서 송부, 자료 지원 등이 수반되고 있다.

2002년부터 성폭력범죄 수사점수가 상향조정되고, 경찰연수 및 직무교육에 성폭력범죄 수사요령이 의무적으로 포함된 이후 수사기관에의 사건 연계와 협조가 일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연계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자문변호사들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지속적 지원을 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 치유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8 상담연황 총괄>

<단위: 건(%)>

| 피해유형 | 연령 | | | | | 계 |
|-----------------|--------------|------------|------------|------------|------------|------------------|
|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미상 | |
| 강간 | 259 | 128 | 55 | 6 | 12 | 460 (34.1) |
| 강간미수 | 30 | 2 | 4 | 0 | 0 | 36 (2.7) |
| 특수강간 | 18 | 14 | 4 | 0 | 0 | 36 (2.7) |
| 성추행 | 236 | 94 | 124 | 87 | 8 | 549 (40.8) |
| 성희롱 | 188 | 19 | 13 | 1 | 3 | 224 (16.6) |
| 음란전화 | 22 | 1 | 0 | 0 | 3 | 26 (1.9) |
| 사이버성폭력 | 7 | 1 | 1 | 0 | 3 | 12 (0.9) |
| 몰래카메라 | 4 | 0 | 0 | 0 | 0 | 4 (0.3) |
| 성폭력상담 계 | 764 | 260 | 199 | 94 | 30 | 1,347 |
| | (55.7) | (19.3) | (14.8) | (7.0) | (2.2) | (100) |
| 스토킹 | 82 | 3 | 1 | 0 | 1 | 87 (30.5) |
| 성관련 | 9 | 4 | 0 | 0 | 38 | 51 (17.9) |
| 혼인빙자 | 12 | 0 | 0 | 0 | 0 | 12 (4.2) |
| 기타 | 46 | 18 | 5 | 0 | 66 | 135 (47.4) |
| 기타상담 계 | 149 | 25 | 6 | 0 | 105 | 285 (100) |
| 1차 상담 총계 | 913 | 285 | 205 | 94 | 135 | 1,632 |
| | (55.9) | (17.5) | (12.6) | (5.8) | (8.2) | (100) |
| 성폭력 재상담 | 299 | 139 | 56 | 65 | 3 | 562 |
| 기타 재상담 | 19 | 1 | | | 2 | 22 |
| 재상담 계 | 318 | 140 | 56 | 65 | 5 | 584 |
| 전체상담 총계 | 1,231 | 425 | 261 | 159 | 140 | 2,216 |

데이트 성폭력,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¹⁾



장윤경(본 상담소 부소장)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1993년 4.2%, 1996년 6.4%, 2001년 9.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의 1996년 연구에 의하면 심한 성폭력의 72.7%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고, 그 중에서 친구나 애인에 의한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 속에서 데이트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 혹은 개인적인 성문제로 인식될 뿐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더욱이 데이트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데이트 성폭력 실태,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경험, 데이트 상대 유무), 성평등 의식, 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를 매개로 하여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으로는 데이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시기가 대학시절이라고 판단하여 서울 지역의 8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531명에게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2. -을 토대로 쓰여졌다.

이 연구는 국내에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트 성폭력 피해 실태

지난 1년간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20.5%를 차지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우 57.0%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1988년도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지만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피해 실태보다 높은 결과로, 그 동안 데이트 성폭력의 숨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데이트 강간이 6.0%, 데이트 성추행이 49.1%, 데이트 성희롱이 44.9%였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65.4%, 남성이 34.6%로 선행연구에서의 일반 성폭력의 남성 피해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데이트 성폭력을 한 상대방과의 관계정도는 ‘좋아하지 않지만 부정기적으로 데이트’가 7.7%, ‘데이트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편’은 10.6%,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편’이 33.7%, ‘사랑하지만 결혼은 안 할 생각’이 34.6%, ‘사랑하고 결혼할 생각’인 경우는 13.5%였다. 즉 친밀해 지려는 관계이거나 결혼을 결심한 관계인 경우보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단계에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비디오방, 노래방, 카페 등이 37.5%, 야외의 한적한 곳이 18.0%, 상대의 집이 15.0%로 주로 데이트하는 장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는 이성에 대한 불신이 37.5%로 가장 많았는데, 이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불신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이 사용한 가해방법은 주로 ‘애원을 하면서 요구했다’로 이 결과 또한 친밀한 관계이고 성적인 접촉이 허용된 관계라는 전제에서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후에 다른 사람과 의논한 경우는 26.0%에 불과했고 의논한 상대로는 친구가 78.6%였다. 이는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인식하여 친구와 의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에 대처한 경우는 51.9%, 대처하지 못한 경우는 48.1%로 선행연구의 일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 대처를 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처한 형태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72.2%로 무척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사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처방법이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가 24.0%, ‘내 잘못도 있어서’가 18.0%, ‘헤어지게 될까봐’가 12.0%였다. 이 결과는 모두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대상자 중에서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3.6%였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89.7%이고 남성 피해자가 10.3%로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피해자의 경우도 일반 성폭력 피해에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62.3%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30.4%, 강간이 7.3%로 나타났다. 피해 나이는 6세에서 10세가 34.8%로 가장 많았고, 11세에서 15세, 16세에서 20세가 각각 29.0%로 나타났다. 즉 6세에서 20세 사이에 92.8%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부에서의 활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56.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높은 결과로 피해 횟수가 단 한번인 경우가 88.4%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14.5%로 친족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성평등 의식, 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에 대한 태도

‘성평등 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이전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평등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허용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허용적이었고 대학입학 이전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덜 허용적이었다. 반면 데이트 상대가 있는 응답자일수록 폭력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데이트 상대가 있을수록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대학입학 이전의 성폭력 피해 경험, 데이트 상대 유무,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였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를 매개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성평등 의식, 그리고 폭력 허용도로 나타났다. 결국 성별에 따라 피해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가 높았고,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트 성폭력이 성적 친밀감이 있는 관계에서의 애정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데이트 상대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문제가 생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적 문제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욱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일반 성폭력 피해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의 논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로 되어진다.

성별, 성평등 의식, 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폭력 허용도를 낮추고 성별에 따라 데이트 성폭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구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데이트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애정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사회 문제의 하나로 해결해 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트 성폭력 관련 연구는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성관계 욕(Complain)하기 - 성관계와 성폭력



변혜정(본 상담소 자문위원, 前 부소장)

나 와 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성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냐고... 성은 일기장이나 쓸 수 있는, 사적인 경험이며 아름답게 간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경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나에게 성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지금의 자신의 일상이 편안하냐고, 굳이 성 경험에 국한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했다.

... 그녀는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것이 삶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불쌍하며 가해자는 나쁜 놈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다. 동시에 성폭력을 당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많이 말해야 하며 그것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그녀는 (성폭력특별)법의 강력한 시행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한 여성만의 대답이 아니었다. 많은 여성들이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성폭력과 성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했다. 자신들의 경험이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성폭력인 것 같은데, (성폭력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닌 것 같다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의 여러 사례, 예를 들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히라가 처음에 레트 버틀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자신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이야기되던 그런 수많은 사례들 때문에 처음엔 그것이 사랑이려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폭력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오하라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오하라가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 오하라가 그 남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영화 속의 스칼렛 오하라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험,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자신의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연구자가 묻지 않아도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는 아니지만 '성폭력스럽다'고 그녀들은 결론짓는 것 같았다.

성폭력은 행위의 문제(원하지 않는 성기삽입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과감히 말하기도 했다.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성관계를 해버리는 관계, 성관계를 해버리는 것이 더욱 편안한 관계, yes·no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 관계라고 말했다.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닌 관계.....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만 성폭력(아니 문제적인 성관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관계와 성폭력은 자로 줄긋듯이 구분될 수 있는가? 노력하면 행복하지 않는 성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가? 과연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무엇인가? 더 넓게 물어보자면 여성들에게 성(sexuality)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여성의 성은 일탈적인 성-매매춘, 포르노그래피, 성폭력, 혼외 관계 등을 통해서 말해졌다.

그래서인지 일탈적이지 않는 성에 대해서는 '사적'이라는 미명아래 말해지지 않는다. 물론 여성들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경험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말할 언어가 없다. 그럴 자리가 없다.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자신의 경험을 말할 것인가? 단지 불행한 이야기를 불행하게 함으로써만이 말할 수 있었다.

성폭력을 이야기한 여성주의 역사에서도 여성의 성을 말하기보다는 가해자인 남자의 성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이야기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묻기에는 너무 할 일이 많았는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특히 결혼 한 여자들은 남편(남자친구)을 욕하거나 시댁을 쉽게 욕한다. 정말로 밉기도 하겠지만 버릇처럼 그녀들은 말한다. 그녀의 주요한 삶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경험인데도 그들은 곧잘 말을 한다. 그래서인지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화도 풀고 분풀이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욕한다는 것은 욕망 한다는 것과 통한다. 자신의 욕망이 그 무엇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불평도 하고 욕도 한다.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자아와 구조와

의 충돌에서 욕을 하면서 그것을 삭히기도 하며 변화를 모색한다(물론 욕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성관계/성경험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사적이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그 경험이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성폭력에 대해서만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불행한 피해자로서 말이다.

그런데 반-성폭력 운동 10년여의 역사 속에서 타자의 성폭력이 말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성의 문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같게 인지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여성들의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경험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성폭력의 경계를 허물면서 자신의 성경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이름 붙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 관계의 하나로서 아니면 전부로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맥락에서 권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신을 옥죄이는 그 권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성적주체로서, 성적권리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스칼렛 오히라는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녀는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구요. 자신을 솔직하게 던진 매력적인 여자로 생각해요.’ 라는 도발적인 언설로서 기존의 상상력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말이다. 얼마만큼이나 나는 나의 관계맺음에 대해 욕할 수 있을까? 

월드컵, 축제, 여성, 그리고 포퓰러¹⁾



김지선(본 상담소 기획조직팀)²⁾

6월 한달 동안 ‘대~한민국’ 외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집집마다, 그 시기 이야기 거리에 ‘월드컵’은 단연 최고였다.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월드컵 한달간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다. 밤늦게까지 여성, 남성이 한데 묶여서 트럭을 타고 거리를 누비면서 태극기를 펼리며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응원을 계속했다. 보통 때면 조용해지는 자정 이후에도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떼를 지어 응원하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포옹을 해주었다.

월드컵을 통해 많은 얘기들이 만들어졌고, ‘여성의 자유로운 월드컵 축제 참여’가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스포츠를 싫어하는 여성들도 이제 축구의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면서 관전을 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경기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깨를 걸고 같은 목소리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모두가 화합했다고 했다. 거리응원에 참여한 여성들을 주목하면서 ‘여성도 이제 남자들만의 경기라고 이야기했던 축구에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라고 각 언론들은 얘기했다. 월드컵이 일으킨 빅뱅이라며 여성들의 억압된 자유를 풀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과연 2002 한일 월드컵은 ‘여자, 남자가 같이 즐기는, 여성이 주체가 된 축제’였을까?

대학시절 축제 생각이 난다. 아침부터 밤늦게, 새벽까지 장터가 열리고, 군데군데에서 운동

-
- 1) 지난 월드컵은 대규모 시민들이 광장을 점거한 것에 87년을 상기시킨다고 얘기되었고, 사람들이 모인 시청 앞은 80년 광주의 ‘해방공간’과 비견되었다. 그 엄청난 의미부여작업을 보면서 필자는, 월드컵 속에 숨어있었던 이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담론주체들과 이를 둘러싼 현실에 분노한다.
 - 2) 그리고, 나뉘터 편집팀이 보는, 필자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은 ‘심각해 보이거나 사실은 재밌는 친구’라는 반응.

경기가 이뤄지고, 각 동아리마다 흥미 있는 전시나 홍보를 하느라 바쁘다. 서로 자신의 동아리 혹은 학과의 끼를 발산하며 축제에 참여한다.

대부분의 여학생은 이 날이 오랜만에 집에 늦게 갈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밤늦게 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로 치부되고 있고, 그 시각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일정정도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딸이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소에 그런 불평등에 힘들어했던 여학생들은 이런 축제를 계기로 부모님에게 다른 친구들도 많으니 하루만 늦게 가겠다고 어렵게 허락(?)을 받는다. 그렇게 겨우 얻은 자유시간이기에 더욱 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의 대동제는 마치 남성영역 침해에 대한 단죄라도 하는 양,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번 월드컵 기간도 다르지 않았다. 축제기간이라고 모두들 들떠있는, 여성도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기쁨을 발산하게 되었다고 말한 그 순간에, 성폭력 사건 또한 여러 건 발생했다.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경기와 관련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관련상담으로 6월 한달 동안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도 10여건에 이르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축제라는 미명하에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쉬쉬하는 여성들이 더 많으리라 예상된다. 이 기간동안의 언론 또한 월드컵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나 사건, 사고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든 피해자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세계인의 축제라고 떠들어 댄 월드컵, 여성도 열띤 응원을 통해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월드컵이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였는지 되묻게 한다. 필자가 보기엔 월드컵 기간에도 여성은 자유롭지 않았으며, 그동안 여성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듯 사회전체의 가부장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장소는 없다는 것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 분명해졌다고 본다.

축제라는 미명하에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박탈당해야 하고, 그것이 별 문제제기 되지 않는 한국사회는 분명 여성에게 열려 있는 무대가 아니며, 특히 이번 월드컵이 여성에게도 자유의 장이었다고 말한 언론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여성은 과거에도 그랬으며 월드컵 기간, 현재까지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억압 당해 왔다.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말할 것 없고, 직장내·가족내에서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월드컵 기간의 성폭력은 흥겨운 놀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이 여전히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폭력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오히려 여성이 문제제기 했을 때 분위기를 깬다고 무시한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버젓이 다닐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월드컵의 실제 모습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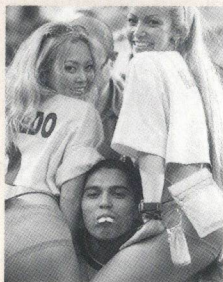
월드컵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이 극찬했지만 몇몇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월드컵 공을 만드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제3세계 어린이의 인권문제, 세계가 하나된 양 이야기하는 속에 여전히 착취당하는 이주 노동자, 축제에도 마음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신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 글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하나 더, 더하고자 한다. 월드컵에서 여성 또한 피해자였으며, 교묘한 방법으로 여성이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수 언론들로 인해, 더욱 많은 억압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당사자인 여성조차 감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다. 

월드컵 속에서의 여성들은 '축구선수의 애인', '경기전 애인과의 섹스 허용여부에 따른 경기실적 차이', '각국 여성팬들의 응원모습의 차이' 등 부차적이고 도구적인 대상으로 기사화된 경우가 많았다.

※ 아래는 관련 기사 중 몇 장면을 수록한 것.



“축구는 안 보고 잣밥에만... 긴 머리의 미녀를 가운데 두고 수십 명 남자들이 몰려있다.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모 스포츠신문 6/27)



“속옷을 걸뒀처럼 입은 두 미녀가 고풍적인 포즈를 취했다. 두 미녀사이로 호나우두를 흥내낸 남자의 얼굴이 마냥 행복하다.”
(모 스포츠신문 6/27)



(일본 모석간 신문)

※ 눈에 띄는 복장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 여성응원자는 미스월드컵이라 불려졌고, 이후 그녀를 포르노 배우화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한 작은 배려



김 언 정(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¹⁾

프랑스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임신인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에도 임신 진단서를 제시하고 길게 줄을 선 슈퍼에서 앞쪽으로 가서 먼저 계산하는 임신부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거기에 비해 한국사회의 모성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나는 경험한 바 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지하철로 출퇴근하였던 나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는 시점부터는 장시간 서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매일 아침, 저녁 어떻게 하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가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생각다못해 출근길에는 조금 일찍 나와 두세 정거장 일부러 돌아가서 앉아 오는 방법을 고안했고, 퇴근길에는 몇 대를 그냥 보내면서 빈자리가 있는 전철을 골라 타곤 했다.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건 만원의 지하철 속에서 배가 한참 나온 임신부라도 자리양보를 받는 건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임을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되도록 자리양보를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을 택하곤 했지만 전철을 그냥 보내거나 두세 정거장을 되돌아갈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행운을 빌며 노약자석 앞에 서곤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임신부는 노약자석에서도 자리 양보를 받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임신부는 자리 양보를 해야 할 약자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었다.

언제였는지 배가 한참 부른 시기 지하철 안에서. 그 날도 혹시나...를 기대하며 노약자석 앞에 섰는데 자리에는 친구인 듯한 20대 여성 세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 현재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여성단체 활동가와 두살된 아들내미 엄마이다. 어떻게 하면 NGO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와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중이다.


임산부임을 모르리 없는 내 배의 크기를 보고 몇 정거장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 사람을 보면서 조금 착잡함이 밀려왔다. 그 순간이었다. 20대 여성 세 사람이 동시에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던 것은. 60이 될까말까한 젊은(?) 할아버지 한 분이 승차하신 거였다. 한껏 부른 내 배는 몰라라 했던 그들의 무조건 반사와도 같은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해서 더 이상 그 앞에서 있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봐도 우리나라 학교 교육 속에서 노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어도 모성보호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생명의 신비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생명의 신비를 이루어내는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교육되지 않는 것이다. 그 날 지하철에서의 세 여성의 머리 속에도 노인들에게 자리양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하게 있었지만 아마 임산부는 해당사항이 없었던 듯 싶다. 어찌면 조만간 정작 자신이 임산부가 될 수도 있는 20대 자매들에게서 조차 임산부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여성들끼리의 공감대나 연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한 경험이었다.

일반화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으로 자리 양보를 가장 많이 해주었던 사람들은 20, 30대 젊은 남성들과 40, 50대 아주머니들이었다. 남편도 나의 임신 이후로는 임산부를 보면 꼬박꼬박 자리양보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리를 양보했던 젊은 남성들은 아마도 부인의 임신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최근에 부인의 임신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40, 50대 아주머니들도 임산부의 힘들음을 절절히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다.

거기에 비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들에게서는 자리 양보를 기대하기란 거의 힘들었다. 학교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임산부가 배려받아야 하는 목록 안에 포함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하는 것일까.

오늘 9시 뉴스에서 40년 전 6명에서 현재는 1.47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아이 한 명당 교육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이란단.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자체를 여성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배려받지 못하고 즐겁게 보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임신하고 싶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임을 왜 모르는 것일까.

임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성을 보호할 줄도 아는 그런 사회.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고, 배려받는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성보호를 위한 작은 배려 제안!!

1. 버스나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양보하기
2.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애인주차공간처럼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 만들기
3. 길게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에서 임산부에게 우선권 주기

Supporters

사건지원 과정에서 그녀들이 하고 싶은 말

나눔터 좌담¹⁾

■ 일 시 : 8월 7일 4시

■ 참여자 : 나눔터 편집팀 고인, 시타, 시탕

나눔터) 대학내 혹은 단체 바깥에서 사건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

시탕) 사건해결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학내 비대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사건지원 실무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감이 없었다. 학교 당국도 학칙에 대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비대위에서 학칙 해석 보고서를 작성해야했다.

예비역들을 위주로 '가해자임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판정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 사건지원 단위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무감하다가 성폭력사건이 터지자 가해자에 대한 지지와 옹호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놀랐다.

1) 애초에 이번 좌담은 명예훼손 역고소 당사자로서의 어려움과 명·훼 관련 대응담론을 고민해보기 위한 자리였는데, 사건지원·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풀어놓다 뒷부분은 미처 얘기나누지 못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놓쳤던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 시타 : 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해 왔고, 현재 KBS 노조위원장 성폭력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들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되어 1심재판 중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탕 : 대학내 사건을 지원하던 중, 대자보 작업으로 학내에 사건공개를 하게 되었고, 학내 징계조치 이후,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 되어 약식기소 벌금 5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재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분들 모이세요.

사건에 대한 공론화작업을 할 때 효과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한 것 같다.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설마하는 생각도 있었고. 실제 사건공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담론화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했다.

사건 공개전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검토 받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인신공격들이 있어 힘들어했다. 한두 달 사이에 이 모든 문제들이 터져 감당이 안됐고, 총여가 이 것 때문에 거의 마비 상태였다.

시타) 객관적 상황이 노조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가해자가 갖는 권력 때문에 노조, 노조내 다른 구성원, 상급단체와의 협상 등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꼭 필요했다. **가해자 조직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단체·시민단체의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과정 등 다 협상의 과정이었는데, 협상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힘, 이름, 인적·경제적 자원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컸다.**

무력감도 많이 느꼈고, 백인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포지션으로 출발한 것이었는데, 사건을 해결되게 만들려고 하니깐, 너무 많이 양보하고 협상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 등 원칙과 실리와 전략이 뒤범벅되었던 것 같다.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다.

나눔터) 기존단체가 이미 확보되어있는 나름의 자원으로 사건해결에 관여하게 되는 반면, 조직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자원을 처음부터 규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 같다. 사건지원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느꼈던 어려움은 없었나?

시타) 피해자들이랑 계속 관계를 가져오면서 단체활동가, 상담원들을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됐다.

피해자와 어떤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사건지원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피해당사자는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원자이면서 같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식의 관계를 형성해야 할 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다.

처음에는 수퍼우먼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내가 힘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 힘들 것이고,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 사람' 이라는 설정을 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왔던 것 같다.

사건지원하면서 스스로도 피해자화 되었던 것도 같다.

한번은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그 인간(가해자)도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식의 애길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났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싸워왔던걸 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맥락이 있었던 건데 내가 그걸 막아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성폭력경험을 어떤 공식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피해자들과 계속 관계를 가지며, 성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부분이 많다.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이 피해에서 회복한다는 것이 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힘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탕) 그만 사건을 중단하고 싶다고 피해자가 얘기할 때, 어떨 때는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원자로서 표현은 못하는 거고,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어렵고, 부담스럽고. 피해자 편에서 모두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그냥 비대위 지원자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했다.

나눔터) 피해자라는 고정된 상이 있다기 보다는 시간, 상황의 추이와 함께 변화하는 것 같다. 피해자와 사건지원자의 관계설정 또한 다양하고 또 변화가능한 것 같다. 사건이 장기화될 때 지원자들도 지치기 쉬운데 그럴 때 오히려 피해당사자가 힘을 주는 경험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시타) 피해자들한테 진짜 힘 받는 거 있다.

나눔터) 이후에 대학내 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것인가?

시탕)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가를 보니까. '사건만 대책없이 만들어지는 게 대학이라는 공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란했다. 성폭력기초 세미나 할 때는 사건이 있으면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후대책이 없이 사건해결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회, 비대위 친구들의 실무능력은 물론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풀을 파악하고 확보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히든카드 하나 없이, 자원에 대한 확보없이 사건을 맡으면 피해자와 사건을 지원하는 우리한테 모두 상처다.

사건하나 공론화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제반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시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번 사건 지원하면서 느꼈지만, **실제 사건지원에서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사소한 것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관련해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단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덧붙여, 자기의 주제를 잘 알아야 할 것 같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지. 초반에는 뭐가 일이 잘 안풀리면 괜히 미안하고, 더 백방으로 뛰고 그랬다. 사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도움은 내가 아닌 다른 어느 단체, 사람들이 잘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모두다 떠안으려 하는 것은 지원자 스스로도 다치고, 피해자도 길을 돌아가는 셈이 되기도 하다. 더 빠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상담자 역할을 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했다. 속상하기도 하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왜 내가 미리 판단하고, 그런 옵션이 가능하다는 걸 애길 해주지 못했을까...하는 생각.

단체 밖의 개별 사건해결의 경우, 달리 호소할 때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멀고, 가까운 커뮤니티, 아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든 도움받아 해결하려는 경우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매달리고, 이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해주려고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피해자와의 관계의 문제. 이 부분은 아직 고민중.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하다. 나는 내가 힘들면서도 ‘힘들지. 미안하다’ 피해자가 이렇게 애길 하면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 나 하나도 안힘들다’ 그렇게 대응을 하곤 했었는데, 명예훼손 기소 결정되고 나서 그런 가면이 깨졌다. 기소 결정 후 한달 동안 피해자들이랑 서로 연락을 안했다.

충격도 크고 힘들기도 하고. 서로 연락 안하다 나중에 만났는데, ‘그때 그랬다. 내가 힘들었다. 서운했다.’ 이런 애길 하게 되니 더 좋았던 것 같다. 서로 그렇게 솔직해지지 않으면 계속 추측을 하며 가야하는데 그게 서로한테 엄청난 감정노동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사건을 지원하는 사람인 자기 자신도 모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지원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래 가게 되면

자기도 굉장히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멋진 지원자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노력하지 말고.

사탕) 실제로 지원자들 대부분 피해경험이 있는데,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아니면 '나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재는 왜 이렇게 하지' 등 계속 자신의 피해경험을 끄집어 내게되어 괴로웠다. 피해자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저 사람은 피해자라고 상담도 받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나는 그때 상담도 못받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식으로.

사건을 지원할 때는 사건진행에 휘말려서 그런 심정들을 해소할 수가 없었다. 무력감도 느끼고 공포감도 느꼈었다. 사건해결도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먹는 겁처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느낌... 내가 피해자처럼 피해자화가 되는 것 같았다. 근데 피해자한테 또 좁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니까... 지원자들끼리도 서로 겁먹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했고 그런 모습 보이면 서로 놀리기도 했다. 비대위 사람들 중에는 서로 등 돌리고 관계회복 안되고, 여성운동 등지겠다고 나간 경우도 있었고.

나눔터) 사건지원자로서 느끼는 어려움, 피해자화 되는 것, 스트레스 등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풀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사건지원자로서 여성단체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탕) 막상 피해자에게 단체를 소개해줬는데, 자신의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더라. 왜 그런대를 소개해줬냐고 원망하기도 했었다. 대학안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연계를 하려고 할 때는 믿을만한 단체가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단 생각 많이 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드러나 있는 자원이 없다는 느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


학내 여성운동도 외부와의 연대 기반을 확보한 후 시행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단체와 평소에 소통이 없었던 것 같다. 거창하게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평소에 일상적 소통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예를 들면, 총여 선거 때부터 단체와의 여성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학단위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것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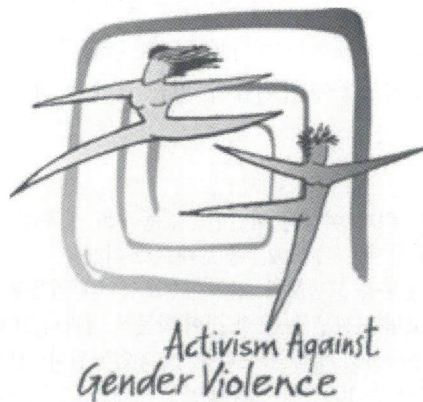
시타) 지금은 좀 다르지만, 연대세력을 만드는 과정 당시에는 기존단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1차 공개했던 사건들과는 달리 명확한 사건인데, 좀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하

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공개를 하기전에 물밑작업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었다. 노동단체의 경우, 조직내 해결이라는 입장이 백인위하고는 같이 갈 수 없었던 점이 있었고, 여성단체의 경우, 처음에 연대하려는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후에는 의사소통이 없었는데, 이름있는 단체들은 너무 층층시하라 관점자체를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참가하는 단체들은 비교적 힘이 없는 단체들이고...기분이 묘했던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건을 지원할 때... 단체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와 노하우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접근자체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나는 단체가 센터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센터에 있는 자료들은 공유되기 위해 존재하는 자료이고, 여러 노하우들도 적극적으로 공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눔터) 대학내 사안의 경우, 외부단체의 학내지원이 어떤 모습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것 같다. 서로 서운해하거나, 각각의 영역이라고 남겨두는 등 소극적 이해를 해왔던 것 같다. 서로간의 적극적 소통과 연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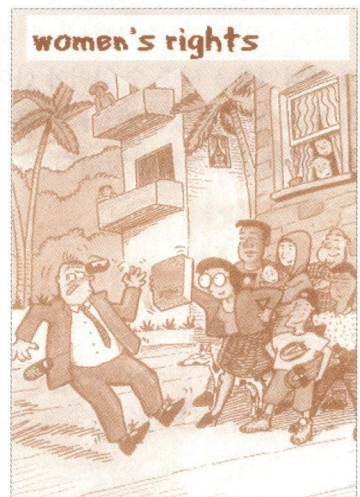
박정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²⁾

우 사이래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있어왔지만, 여성들이 그것을 성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은 30여 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혐오하거나,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숨죽여 살거나,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결혼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서구에서 대중적인 여성운동이 부활하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이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이 공유하는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의 문제 설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가장 내밀한 것, 가장 사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 남성 지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러한 지배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성폭력이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남성들이 포진해있는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은 여성들이 투표권이나 임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형식적인 시민권을 얻었음에도 불**



- 1) 이 글은 필자의 논문-「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2. -을 토대로 쓰여졌다.
- 2) 학부 때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고민했다. 관악여성모임연대 활동을 했고,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자 애썼으나 고혈을 짜낸 논문 한 편이 학문적 성과의 전부이다. 학문적 성과 외에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현재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성원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은 100인위 논쟁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발을 동동 구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대사회의 평등하고 자율적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성폭력이 제기하는 여성의 시민권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이하 100인위) 운동을 고찰하였다. 100인위는 성폭력이 그것의 직접적인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의 “집단적인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성폭력이 여성 활동가들이 ‘운동사회’의 적극적이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일 뿐 아니라, 여성들을 ‘운동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인위는 이러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의 가해자를 실명 공개하였다.

이러한 100인위의 활동은 80년대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아온 ‘운동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피해자의 관점’을 성폭력 판단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 ‘가해자 실명 공개’라는 초법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00인위가 구사하는 개념과 전술은 100인위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90년대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100인위의 태동 과정과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여성단체들의 반성폭력 운동의 핵심은 법 제정 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범죄, 곧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정의하고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법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어 성폭력특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성폭력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여성단체의 핵심적인 정의가 누락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운동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성폭력의 문제 의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 위에서 이를 더욱 급진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여학생들의 포괄적인 시민권의 침해로 확장되었고,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관점이 가장 일차적인 준거로 대두되었다. 또한 성폭력 해결의 주요한 방식으로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대학 내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성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문

제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폭력의 해결에 있어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으로 이어진다.

‘운동사회’는 직장과 학교에 이어 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이 뒤늦게 도달한 곳이다. 가장 진보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여겨져 온 ‘운동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100인위는 ‘운동사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공간이 아닐 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단결 이데올로기와 지배 집단과의 도덕성 경쟁이 오히려 성폭력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아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침묵하거나 ‘운동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90년대 중반부터 여성학자와 여성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사회운동의 성맹성(sex-blindness)과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 연속선 위에서 있다.

100인위는 ‘운동사회’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반성폭력 운동의 개념과 전술을 활용하였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자 실명 공개’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100인위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 성폭력의 개념과 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법적, 제도적인 언어로 확고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100인위가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수많은 논점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00인위의 급진적인 성폭력 개념과 기준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100인위 운동은 90년대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의 한계에 의해 제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운동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을 쟁취하고자 한 100인위의 의도는 성폭력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굴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인위 게시판은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경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으로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게시판 논쟁 중에서 성폭력의 개념과 기준이 핵심적인 쟁점

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쟁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세 가지 담론을 추출하였는데, 담론의 역사성과 담론의 생산 주체를 고려하여 각각을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 성적 자유주의 담론, 여성주의 담론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담론이 제시하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과 성폭력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주체에 대해 서로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몇몇 가해자들과 가해자 소속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은, 성폭력 문제의 제기를 ‘운동사회’를 정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비판은 ‘운동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되고, 가해자 개인은 ‘운동사회’와 동일시된다.

이에 비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은 ‘운동사회’의 외부에서 ‘운동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은 피해 여성과 100인위를 정신적으로 취약한 존재이거나 지배 집단에 이용되는 존재, 곧 “프락치”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은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을 ‘운동사회’의 평등한 구성원, 곧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젊은 남성 성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성적 자유주의 담론은, 현실의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원자적이고 고립적인 개인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 중에서 특히 성적인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은 동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남성만을 ‘운동사회’의 완전한 성원으로 인정하는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성적 자유주의 담론이 상정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은 사실은 남성의 경험과 이해에 입각해 있다. 이 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모든 개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모두가 똑같은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별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성폭력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의 형태가 동일



하지는 않다. 특히 성별적인 사회화의 경험이 다른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과 표현이라고 이해되는 것들이 여성에게는 폭력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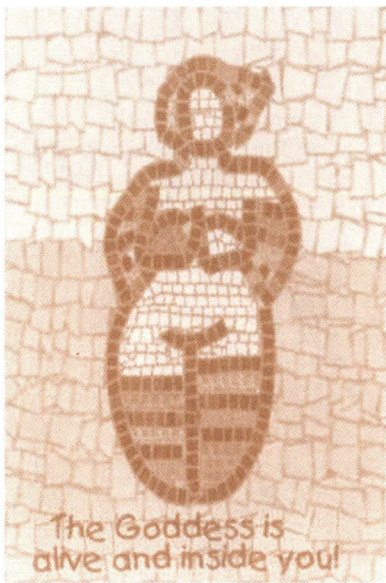
하지만 성적 자유주의 담론은 성적인 차이와 권력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남성적 욕망을 수용하고 재생산하는 여성들만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보수 소녀”나 “금치산자”로 비난한다. 이처럼 성적 자유주의 담론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동등하다고 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의 성별 권력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을 근대적인 ‘개인’에 미달하는 존재로 여긴다. 따라서 100인위와 피해 여성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0년대 반성폭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운동사회’ 여성 활동가와 일부 남성 활동가 그리고 여성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개한 여성주의 담론은 성폭력을 성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이 ‘운동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 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 활동가들이 ‘운동사회’의 정당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을 ‘운동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프락치”로 이해하는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과 대조적이다.

여성주의 담론은 그러나, 여성이 ‘운동사회’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단지 ‘남성과 똑같은’ 존재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은 성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지 남성과 ‘다른’ 경험이므로, 이러한 여성의 경험이 말해지고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을 고의적으로 침묵시키는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이 위력을 떨치는 한, ‘운동사회’에서 여성이 평등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요원하다.

또한 남성적인 합리성과 쾌락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경험과 성적 차이를 부정하는 성적 자유주의 담론의 “동일성의 정치” 역시 여성의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여성은 남성이 모델이 된 ‘개인’에 미달하는 존재, 애매하고 모순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담론이 여성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관점, 곧 여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주의 담론은 성폭력을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이고 여성이 열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성적 자유주의 담론이 주장하듯이 여성의 취약함을 본질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성별 권력 관계를 지적하는 것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래적으로 열등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100인위 게시판의 '나의 경험 시리즈'가 보여주듯이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에 대한 억압을 발견하고, 이에 대항함으로써 공동체에서 평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피해자화(victimize)함으로써 사회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치학이다.

따라서 100인위의 반성폭력 운동은 한 편으로는 성폭력을 해결함으로써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고자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100인위의 일차적인 비판의 대상이 여성을 '운동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운동 담론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100인위 게시판 논쟁은 여성이 진정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성적 개인 모델에 편입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적 개인 모델은 남성과 똑같은 존재만을 근대적인 '개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여성주의 담론이 대립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100인위 운동과 이후 전개된 게시판 논쟁은 여성이 근대사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100인위 운동과 게시판 논쟁은 시민권이 여성의 '다른' 경험에 입각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쟁점을 던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여신을 주제로 열린 "goddess 2000" 中

숨은 후원자, 멋진 페미니스트 콘웨이 교수를 만나다



(사진제공: 페미니스트저널 1f)

“여성에 대한 세상의 모든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 인터뷰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콘웨이씨는 마치 ‘다음에 또 봐요’ 같은 인사말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
이번 나눔터에서는 후원을 하겠다는 낯선 전화 한 통으로 우리에게 자매애의 힘을 실어준 콘웨이 교수(아일랜드 태생, 외대 영어과 교수로 재직)를 서신 인터뷰로 만나보았다. 그녀는 어떤 동기로,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와 만날 수 있었는지.

나눔터)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페미니스트로서 가장 분노했던 경험이 있다면?

콘웨이)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여성에 대한 대우’ 부분이에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느꼈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가끔씩 지금 살고 있는 인천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 살면서, 남자형제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여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들없는 집안의 여학생들이 받는 심리적 타격은 너무 끔찍했어요.

또, 다른 부분은... 간혹 한국 관공서에서 일하게 되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공무원만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성이 결혼하면 노예처럼 가정에 머물러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에 종사해야 한다는 게 저를 정말 괴롭게 하구요. 이런 여성의 삶과는 달리, 남성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술을 마시고, 호스텔스 바에 가서 성을 사고... 왜 한국 여성들이 이것을 참고 있는지요...

한국사회는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여성혁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모르

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지요. 또 기업들은 여성들의 가정내 노예노동을 바탕으로 이윤을 얻고 있고...

나눔터) 이곳에 살면서, 콘웨이씨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차별은 어떤 것인지?

콘웨이) 서울의 한 대학에 채용지원을 했을 때였어요. 그곳에는 채용된 세 명의 외국인 남자 교수가 있었는데 두 명은 미국인이었고 한 명은 아일랜드인이었죠. 그 사람들이 영어과 학과 장에게 제가 페미니스트이며, (그들의 말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를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어요. 이 학과에 남자들만 있었던 건 이런 식으로 여성을 채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었고, 예외적으로 여성이 채용된 경우가 있긴 했지만, 결국 해고되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은 외국인 남성 뿐 아니라 한국 남성으로부터도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직업을 잘 구하고,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식으로요.

나눔터) 캐나다에 있을 때, 모 신문사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여성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문제삼고, 운동적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들었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한 패션업체가 정조팬티를 제작했고, 신문을 통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콘웨이) 너무 끔찍해요. '정조대' 안에 여성을 가두었던 중세 유럽으로 회귀하자는 생각입니다. 여성은 스스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눔터) 콘웨이씨가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부를 하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재정지원 혹은 기부를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에서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문화가 일반적이지 못한데, 서구권의 기부문화는 어떤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요?

콘웨이) 기부는 사람들의 인식과 관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해 '소유'가 중요한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서구에서도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그러나 (소수자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부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나눔터) 특별히 상담소에 후원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콘웨이) 저는 페미니스트이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주목하게 되요. 무엇보다도, 한국 남성들은 여성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성 폭력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 특히 상담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쁨을

열십턱에서 만난 삶의 향기

장재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성의 삶을 고민하려던 열의진 의욕이 일상의 소소함에 뒤쳐진 채 제자리를 맴돌았다. 무더질 수 없다는 사명감과 내 생존의 질이 좌지우지 될 무엇이라는 강박감에 이내 초조해져 그러나 나는 제자리를 찾곤 한다. 이곳으로 실습을 자원한 이유도 또 다시 외면하여 행복한 척 하기에는 나의 마음이 불편스레 굳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내 여러 양태를 보며 여성을 간과하는 생산적이지 못한 다수 상대주의에 대항하고 싶었다. 가치 문제로 일축시켜 이기적인 논리를 앞세우는 데 화가 났다. 제대로 배우고 당당히 내지를 수 있길 바랐다.

평소 응축된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발을 딛었던만 실습 기간 내내 자신은 되려 스스로

를 검열하고 다잡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했다. 난 결국 박학다식 달변가가 되길 바랬던 것일까. 빈번히 찾아드는 의구심에 마음이 불편했다. '피해' - 내 스스로가 얼마의 진정함으로 이를 맞대하려 했을지 의문이었다.

고민의 시발점은 '피해자' 를 이룸하는 데에 거리를 두며 내 위치의 무사함을 과신하는 나의 오만을 깨우친 곳에서였으며, 삶의 기회는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일깨웠다. 순간 알몸의 자이는 당황했으나 무지의 일촉을 후회하며 진정 자각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울곧은 것을 향해 목을 뺏어야 했으며 점차 이 곳에서 얻어내야 할 것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졌다. 논리 싸움에 뒤쳐진 일순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던 어찌보면 개인의 이해는 진정 '피해' 의 감수성을 읽어내고자 치열한 뇌굴림을 시작했다. 궁색한 대응을 아쉬워하던 이전의 모습은 내 자신의 목소리, 그 당위에 확신하며 앞서 주장할 수 있을 당당함으로 성장했으리라 믿는다.

진실에 눈이 띄니 세상은 그닥 아름답지 않았다. 로맨스를 잃었으나 미화된 일상은 사실 폭력과 무기력의 잿빛 내음이었으니 오히려 다행인 셈일 게다.

나는 진정 나의 위치를 직시하게 되고, 이는 현명한 대처와 용기의 원천으로 작용케 될 것을 확신한다.

이곳에서 나의 스승은 사람이었다. 우리를 지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실습생들, 무엇보다 열림터 친구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이해와 양보, 배려의 미덕을 일상에 녹여냈고 각각의 맑은 음정으로 열림터 공간의 작은 평화를 울렸다.

그들 앞에 숙연히 자리하여 스스로는 일상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고자 했다. 부족하지만 순수 노력을 들였던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든 즐거이 응해주어 보람을 안겨준 열림터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늘 반가이 맞아주던 그 웃음에도.

또한, 각 주제의 강연으로 여성의 감성을 돌아주고 울곧은 길을 밝혀주던,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의 향방이 비록 흐리더라도 꾸준히 유지해야 할 가치를 가슴에 안았다. 당위의 의무가 아닌, 나와 내 자매의 인간다움을 위한 우리네 삶의 자연이므로.



2002 하반기 열림터 실습생들. 왼쪽부터 이정은, 장재정, 김현지, 오윤혜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박민영, 김아미님. 적극적인 태도와 밝은 웃음으로 실습에 임해준 여러분들로 인해, 상담소도 행복했습니다.



정조팬티 강요하기 사화

새 판 (편안한 수직면 원본)

“어? 이게 뭐야?” 정말 우연이었다. 정조팬티 어찌구 하는 뉴스를 발견하게 된 것은. 성폭력 관련한 다른 사안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날 뜬 따끈따끈한 뉴스를 접하게 된 거였다.

열쇠, 자물쇠가 달린 신제품 팬티가 한 업체에서 출시됐는데, 금속줄이 달려서 잡아당기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단다. 그래서 그 속옷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도 있고, 연인들끼리 속도 위반도 방지할 수 있다나. 이래저래 순결과 정조를 지킬 수 있다는 일명 ‘정조팬티’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한다.

상업적인 목적의 상품 하나 하나를 다 문제삼을 수도 없고, 혹여 간접광고를 해주는 셈이 될까 싶어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몇몇 피해자들의 분노에 찬 전화에 힘입어 항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몇 군데 언론에 보도가 되자 해당업체에서 제품의 순수한 제작의도를 너무 몰라준다고 서운하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방문을 하겠다.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 처럼, 밤늦게 택시를 타거나 할 때 미리 금속줄을 당겨 성폭력을 예방하란다. 그리고 그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아니냐고 반박한다.

가령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자. 시중에 나와있는 자물쇠나 보안장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인도 철사로 쉽게 열 수 있는 싸구려 자물쇠에서부터 24시간 감시하는 경비 시스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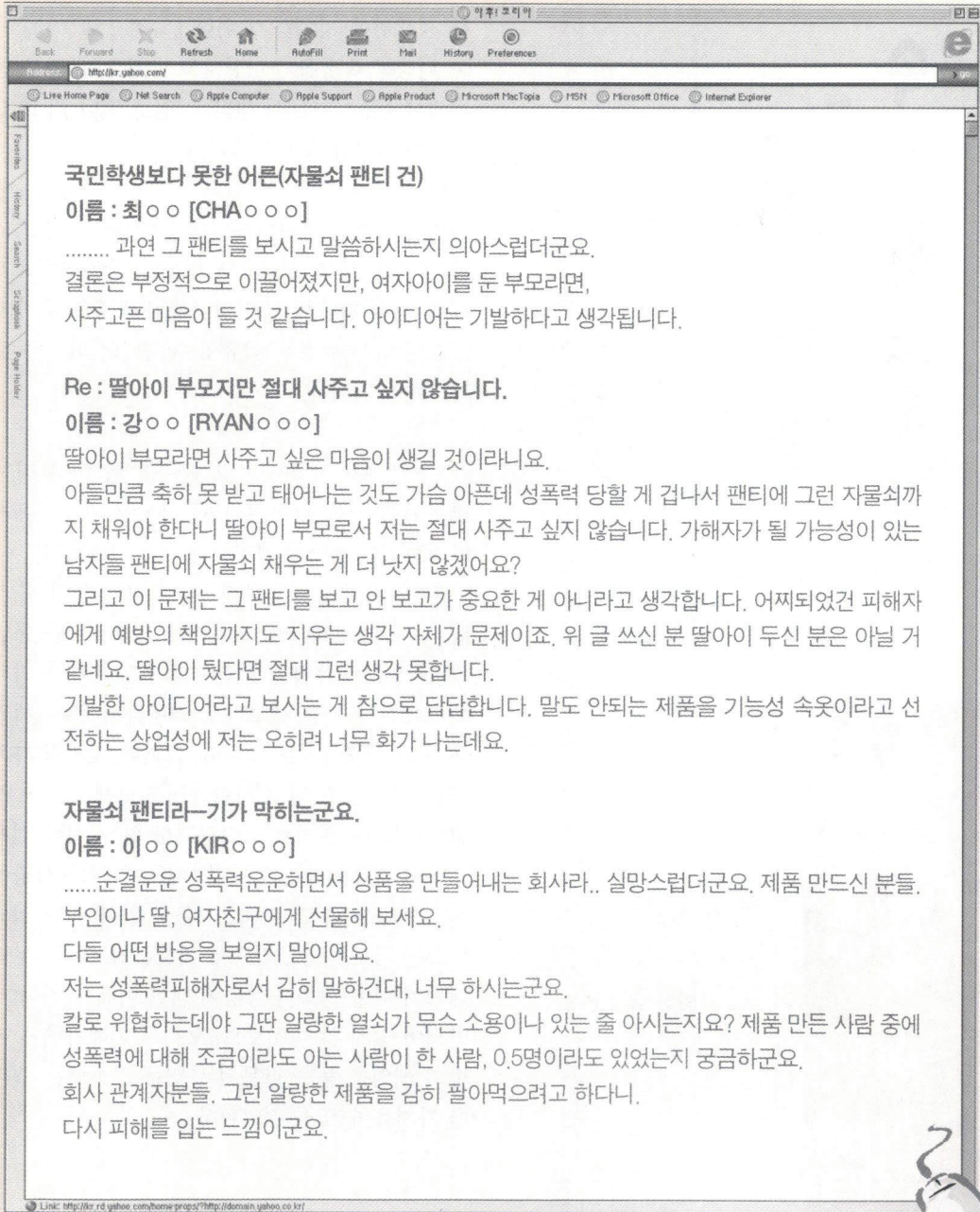
강도가 든 집의 주인에게는 왜 고가의 보안시스템을 미리 설치하지 않았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왜 늦은 시간 밤길을 혼자 걸었냐고, 왜 끝까지 목숨걸고 저항하지 않았냐고, 왜 소리지르지 못했냐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이야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이야기이며 제 2의 성폭력을 가하는 말이다.

몇 가지 제작의도를 설명하다 나중에는 단지 이벤트성으로 제작된 팬티일 뿐이라는 제작업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제품이 전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기업들에 분노가 느껴졌다.

어쩌면 이 싸움은 길어질 지도 모르겠다.

해당 제품 관련 소식을 다룬 방송사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방송사 사이트에 게재된 시청자 의견 中



“강요한 기사” 만약 강요한 기사

패 선업체 인따르시아는 지난 8월 23일 “성범죄를 예방하고 순간적 감정에 의한 성행위를 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단속’이라는 속옷을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자물쇠 팬티’, ‘정조 팬티’라고 소개하며 기사화 한바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관련업체의 홍보내용과 관련 기사를 다룬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가 성폭력피해자와 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해 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1.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기보호와 저항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흔히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거나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켈수 있느냐’는 통념의 잣대로 성폭력을 화간으로 몰고가거나 피해 여성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저항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는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는 것이 실제 성폭력 피해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줄을 조여주면 절대 벗길 수 없다...’는 식의 광고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쉬운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기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항의 책임을 묻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련 기사를 다룬 일부 언론은 <“성폭행 꿈도 꾸지마!” 정조팬티>, <‘자물쇠팬티’ 나와... 성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타이틀로 이 제품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보도관행은 “성폭행-정조”라는 용어를 등치시킴으로써, 성폭력이 차별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이며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의 문제임을 간과하고 성폭력을 피해자의 순결과 정조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순결상실의 문제로 개념화하였던 94년 이전의 ‘정조에 관한 죄’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부당함의 이유로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 범죄의 문제로 재개념화된 바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광고문안을 비판없이 그대로 게시한 이번 기사에서 보여진 언론의 보도관행은 이와 같은 사회변화의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보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3. 또한 관련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초기 팝업창과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중세 십자군 원정을 나가는 기사가 부인의 정조대 열쇠를 하인에게 맡기는’ 일화를 띄움으로써 관련제품의 기획의도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정절·정조라는 용어가 부계, 부권사회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임을 전혀 견지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을 함께 판매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고려없이 이러한 용어와 일화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이중적 성윤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상담소는 관련업체나 언론사가 정절, 정조라는 용어에 대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기원에 대한 비판적 고려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광고를 하는 것,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광고가 성폭력피해 당사자에게 가하는 사회적 폭력임을 인식하고, 사회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련업체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키며 성폭력을 희화화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지난 8월 26일자로 발표된 본 상담소의 성명서입니다. 관련된 후속작업으로 네티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즉석투표와 사이버토론회 - 정조팬티, 순결, 성폭력(가제) -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림출처: 국민일보(8/27) '정조팬티여성계발' 기사화



남성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지침

"My strength is not for hurting, so when she said stop, I stopped."

"My Strength is not for hurting, so when I wasn't sure how she felt, I asked."

"My strength is not for hurting, so when she said no, I said OK."

『Men Can Stop Rape!』: 모든 남성들은 성폭력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1. 사용하는 '말' 에 대해 자각하기

: 언어라는 것은 매우 권력적일 수 있는데, 특히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년, 매춘부, 애기 등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종종 여성을 비하하고 좌절시키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말은 여성을 완전한 인간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언어사용은 여성을 총체적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성의 행복이라는 것에 무심하게 되고 덜 존경받아도 된다거나, 권리를 무시해 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우하는 순간, 자신도 그 이상의 존중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2. 의사소통

: 많은 경우 성폭력은 의사소통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성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거나 열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불편해할수록 성폭력 발생율은 높아집니다. 효과적인 성적 의사소통-스스로의 욕구를 분명하게 말하고, 애인의 말에 귀기울이고, 불분명 할 때는 반드시 질문하고-을 배운다면 남성들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용기내서 말하기

: 성폭력 사건 당시를 목격하지 않는다 해도 성폭력적인 행동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 등을 자주 접할 수는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성폭력에 대한 농담을 할 때 그것이 전혀 유쾌하지 않

※ MCSR : 성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남성들의 그룹으로, 워싱턴에 위치하여 활동 중. (www.mencanstoprape.org)

※ 위 지침은 MCSR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을 번역한 것입니다.



음을 얘기하십시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를 정당화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았다면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무엇이든 하길 바랍니다.

4. 피해자를 돕기

: 성폭력이 얼마나 빈번히 발생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 전에는 성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되어지지 않았지요.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수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 세심하게 배운다면, 여성은 물론 다른 남성들도 성폭력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여자 친구들과 대화하기

: 성폭력 피해가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여자친구, 선배들과 얘기하십시오. 기꺼이 경청하고자 한다면, 성폭력의 영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6. 남자 친구들과 대화하기

: 잠재적 피해자로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남자들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에 관해 남자친구들과 얘기하십시오. 성폭력이 남자들의 삶에 어떻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십시오.

7. 조직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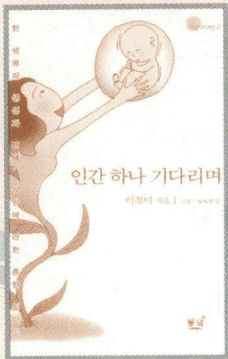
: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한 그룹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8.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하기

: 성폭력은 학력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에 대한 혐오, 종교적 차별 등의 여러 형태의 편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물론,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차등적으로 치켜세우거나 타인의 전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릇된 것임을, 신념과 행동으로 용기내서 보여주십시오.

9. 상대방의 의지에 반한 성관계 하지 않기

: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가해는 압도적으로 남성에게 발생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은 자신의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평등에 가치를 두는 '다른 남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온 편지

『인간하나 기다리며』의 저자 이경미

글을 처음 쓸 때 나는 혼자서 주변의 반대와 몰이해에 맞서야 한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였다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씩씩하게 맞설 수도, 기분 좋게 웃을 수도 없었다. 상담소 식구들이 있었고, 선배와 친구도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내린 결정은 이랬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섹스하기, 혼인신고도 없이 아이 가지기, 신체장애를 가진 시골남자와 같이 살아보기, 일터를 떠나 다른 일터를 만들며 새로운 시골생활에 도전해보기... 이 중 몇 가지는 대개 생각만으로 그치고 잘 저지르지 않는 행동이다. 특히 나의 성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쉬쉬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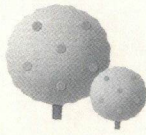
온라인에 칼럼 형태로 쓰던 글을 책으로 내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상 받을 만한 일도, 칭찬 받거나 격려 받을 만한 것도 아니니까.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속도에 맞게,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지속시켜 나갔기에 그걸 위안 삼았다.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행동지침이 결코 새삼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도 참 다행이다 싶다. 설령 이런 내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발칙한 것이라 하여 욕먹는다 해도 애초 출발점이 생명에 대한 긍정과 삶에 대한 애정이었기 때문에 우주의 숨결 속에서는 용인되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은 남들 하니까 하는, 결혼했으니까 겪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이로 인해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대단한 결단의 결과임을 말하고 싶었다. 또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깨우침을 고마워하고 싶었다. 생명이 보여주는 늙어짐과 죽음과의 연속선, 누구든 깨어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엄숙한 진실, 사회의 이중성, 몸의 신비,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정성과 시간 같은 것 말이다.

사실 책이 출간되고 몇몇 잡지에 인터뷰가 나가면서 식구들로부터 심각한 반발과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까발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나에게 닥친 혹은 내가 초래한 도전이나 패배에 몸을 굽히고 피하는 것이지, 까발려진 과거가 아니다.

지난날 내가 기다린 인간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였다면, 앞으로 내가 기다리는 인간은 더 성장해가야 할 나이이고 또한 내가 아는 당신이기도 하다.

- 1)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경남 함양에서 대안교육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요절할 것을 목표로 삼았던 적도 있으나 어느날 문득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음.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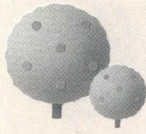
이천시여성농업인회
이천시여성농업인회
이천시여성농업인회
이천시여성농업인회
이천시여성농업인회
이천시여성농업인회

● 후원품으로 열림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박태숙님이 먹거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열림터 식탁이 풍성해졌어요.
 홍순기님께서 식탁, 하얀집에서 서랍장을 기증해 주셨구요.
 이운찬형사님께서 맛있는 과일과 간식을 선물하셔서 비타민 세례로 다들 즐거워했어요.
 박운숙님께서 열림터 친구들을 위한 읽을거리들을 제공해 주셨답니다.
 조중신님께서 꼭 필요한 가스렌지를 기증해 주셨구요. 정대진님께서 서랍장, 책장, 거실장, 거울을 기증하셨어요. 덕분에 열림터가 쾌적하게 정리될 수 있었답니다. 이윤용님께서 카세트 라디오와 CDP를 주셨구요. 유한김벌리에서 생리대, 정보위에서 비디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들로 정성을 전해주셔서 열림터가 더 포근해졌어요. 감사합니다.

● 모두의 성원으로 합정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주택을 사무실로 새단장하는 데 시간이 걸려 두 달이 지난, 5월 22일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셔서 마음으로, 물품으로 힘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 여성정책관님이 시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고맙게 쓰겠습니다.
 상담원 김혜경님이 라면 1박스를 가져 오셨네요. 저희 상근 식구들의 생필품을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나눔터, 각종 자료집을 정성스레 만들어 주시는 신명에서 화분을 가져오셨어요.
 김영서님, 인애산부인과 홍순기 이사님, 인천 길병원 이길녀 이사장님, 한나라당 이회창님, 여성부 한명숙 장관님, 법무법인 고려, 인터넷 해본 유인경님, 마포구청 사회복지과, 전 상근자 정경애님, 여성해방연대에서도 화분을 들고 화사한 모습으로 상담소를 들르셨습니다. 이 날은 실로 화분이 넘치는 날이었는데요, 내담자, 상근자들이 꽃향기에 더더욱 기운차게 살 수 있었답니다.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한완수 상담원님은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져오셨는데, 이것저것 끓이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에서도 포트와 차를 주셨구요.
 센스가 넘치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향초와 모기향을 선물해주셔서 여름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에선 면접실의 내담자를 위해 쓰라고 단아한 머그컵을 전달해 주셨구요, 경기도 여성정책과 김둘순님 오셔서 예쁜 컵을 선물하셨습니다. 덕분에 활동가들끼리의 컵투쟁이 적어졌어요.
 가장 먼저 상담소에 발을 내딛으신 상담원 이정은님은 휴지를 주셨습니다. 그 날 우연히도 화장실에 화장지가 부족했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집들이에 들리시지 못했지만 후에 오신 이영표님은 커피주전자를 선사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소

후원금으로 상담소 이전을 축하해주신 분, 단체도 많았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비즈우먼,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여성의전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평화의샘, 성북자활센터, 내일청소년상담소, 최영애 전소장님, 전소근자 임승영님, 상담소로 다시 합류하신 이미경님, 장운경님, 한국여성상담센터 현혜순님, 김삼화 이사장님, 최은순 이사님, 원혜정님, 경기도여성정책과 정숙영님, 서울화력발전소 김찬균님, 정연순 변호사님, 이명숙 변호사님, 이명선님, 이화숙님, 안홍례님, 이희숙님, 서울지방경찰청 박미옥님, 신순남님, 정현주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이땅의 여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동경

상담소 회원이에요.

저 이렇게 살아요!!

- 열림터 내담자의 치과치료를 해주시고 있는 장경수님께서 상담소 의료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 법률자문위원 최현희 회원님과 김의창 회원님, 두덕 모두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으셨대요.
 - 법률자문위원 이백수 회원님께서 시민과 변호사 100호지령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셨네요.
 - 18기 상담원이신 박미진 회원님은 한국장애인정신지체인애호협회 1588로 일터를 구하셨습니다.
- 축하할 일이 참 많죠?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살아가는 즐거움, 슬픔이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소식을 소중하게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밝은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자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SBS가 공동주최한 "밝은사회봉사대상"에서 본 상담소가 대상을 수상했어요. 10/25, SBS 공개홀에서 관련시상식이 있었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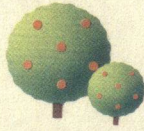
여러분의 도움없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 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계좌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거나, 우편발송되는 지로납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국민은행 009-01-1176-632
- 외환은행 224-22-02532-8
- 기업은행 216-013179-01-018
- 조흥은행 308-01-133092
- 농협 037-01-194301
- 한빛은행 441-04-107528
- 신한은행 219-05-001717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 | | | | | | | | | |
|-----|-----|-----|------|----------------|------|-----|-----|-----|-----|-----|
| 강광원 | 계경문 | 계경희 | 고계영 | 고규선 | 고영석 | 고진규 | 고혜순 | 권기만 | 권영준 | 권정현 |
| 김종성 | 김경옥 | 김경현 | 김권소영 | 김덕명 | 김돌순 | 김명순 | 김미라 | 김민규 | 김성신 | 김숙 |
| 김은희 | 김용진 | 김인숙 | 김성득 | 김순자 | 김연희 | 김영서 | 김용자 | 김은미 | 김진만 | 김창남 |
| 김학훈 | 김현수 | 김후자 | 남기태 | 남영옥 | 도순아 | 류수진 | 맹주현 | 문강진 | 민현경 | 박부자 |
| 박미경 | 박성근 | 박소영 | 박순복 | 박신정 | 박은숙 | 박정옥 | 박정희 | 박준이 | 박지영 | 박지현 |
| 박진숙 | 박창은 | 박현순 | 박현주 | 백일록 | 상목스님 | 성시너 | 손명숙 | 송수녕 | 서성준 | 서정표 |
| 신선혜 | 신정혜 | 신희경 | 안미순 | 안형윤 | 양애경 | 양영 | 엄인숙 | 여영자 | 오유지 | 오태형 |
| 유인숙 | 유현광 | 윤명희 | 윤명화 | 윤영미 | 윤형옥 | 윤형훈 | 윤희숙 | 이근혜 | 이나미 | 이명자 |
| 이미정 | 이민희 | 이상임 | 이선숙 | 이성영 | 이성제 | 이순순 | 이연희 | 이영표 | 이옥희 | 이종란 |
| 이종환 | 이형민 | 이혜경 | 이혜숙 | 이호숙 | 이회화 | 장미숙 | 장석만 | 전연배 | 전유경 | 전홍석 |
| 정남기 | 정영석 | 정옥실 | 정은숙 | 정인희 | 조순희 | 천정환 | 채지수 | 최경식 | 최금희 | 최영숙 |
| 최은경 | 최혜숙 | 허호범 | 황성기 | SUNS(30대 상글모임) | | | | | | |

2월부터 7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강경민 | 강광원 | 강남식 | 강정옥 | 계경문 | 고계영 | 고규선 | 고금이 | 고영석 | 고정남 | 고진규 |
| 구나은 | 구민지 | 권경희 | 권순남 | 권주희 | 금철영 | 김종성 | 김강자 | 김경선 | 김경옥 | 김경현 |
| 김경희 | 김덕명 | 김동희 | 김돌순 | 김미경 | 김미경 | 김미숙 | 김미숙 | 김미옥 | 김삼화 | 김선민 |
| 김선애 | 김선택 | 김성득 | 김세중 | 김소명 | 김소연 | 김순자 | 김연정 | 김연정 | 김연희 | 김영서 |
| 김영숙 | 김영애 | 김영진 | 김옥선 | 김용관 | 김용자 | 김원희 | 김월순 | 김윤경 | 김은경 | 김은미 |
| 김은정 | 김은혜 | 김웅진 | 김의창 | 김이윤상 | 김인숙 | 김일룡 | 김정신 | 김정희 | 김주희 | 김준호 |
| 김지선 | 김지연 | 김지연 | 김지영 | 김지혜 | 김진만 | 김진희 | 김진희 | 김찬균 | 김창남 | 김하연 |
| 김혜경 | 김현란 | 김현수 | 김현식 | 김현정 | 김형수 | 김혜경 | 김혜련 | 김혜숙 | 김혜원 | 김혜정 |
| 김화영 | 김효선 | 김후자 | 김홍식 | 김희경 | 남순열 | 남현미 | 노미순 | 노순희 | 노주희 | 도순아 |
| 류수진 | 류승훈 | 마수정 | 맹주현 | 문강진 | 문효진 | 민용기 | 민현경 | 박경화 | 박귀자 | 박미경 |
| 박미영 | 박미향 | 박민주 | 박병태 | 박부자 | 박선희 | 박성근 | 박소연 | 박소영 | 박순복 | 박신정 |
| 박은숙 | 박정옥 | 박준규 | 박지숙 | 박지영 | 박지영 | 박지현 | 박진성 | 박진숙 | 박진숙 | 박찬은 |
| 박찬혁 | 박창은 | 박현순 | 박혜영 | 박혜진 | 배병주 | 배은경 | 배희진 | 배일록 | 변계희 | 박찬희 |
| 상목스님 | 서명선 | 서미현 | 서민자 | 서성준 | 서정표 | 설연자 | 성명주 | 성시너 | 성은주 | 손명숙 |
| 손수경 | 손이전 | 손종성 | 송문숙 | 송성애 | 신경선 | 신동한 | 신동현 | 신상숙 | 신성희 | 신숙희 |
| 신은주 | 신정혜 | 신희경 | 심경미(suns 30대 상글모임) | 심수희(김인옥) | 심수희(김인옥) | 심창교 | 심창교 | 심창교 | 심혜련 | 안경희 |
| 안홍례 | 양영 | 양애경 | 양연주 | 엄구용 | 여영자 | 오숙자 | 오숙희 | 오유지 | 오은숙 | 오정진 |
| 오태형 | 오현숙 | 오희선 | 오희옥 | 원형섭 | 원혜정 | 유경숙 | 유숙영 | 유은주 | 유인숙 | 유자민 |
| 유현광 | 육향순 | 윤명화 | 윤선화 | 윤숙경 | 윤양현 | 윤영미 | 윤정희 | 윤지원 | 이경룡 | 이경미 |
| 이경애 | 이경은 | 이규화 | 이근혜 | 이근호 | 이나미 | 이내화 | 이대영 | 이덕화 | 이명선 | 이명숙 |
| 이명자 | 이미정 | 이민영 | 이민희 | 이백수 | 이상근 | 이상은 | 이선숙 | 이선이 | 이성수 | 이성영 |
| 이성제 | 이수자 | 이순래 | 이순순 | 이애란 | 이영란 | 이영분 | 이영옥 | 이용호 | 이운희 | 이윤선 |
| 이은미 | 이인자 | 이재인 | 이정순 | 이정아 | 이종란 | 이종환 | 이준미 | 이푸른메 | 이혜웅 | 이현숙 |
| 이혜경 | 이혜경 | 이혜숙 | 이호숙 | 이호진 | 이희숙 | 이희영 | 이희화 | 임민희 | 임복선 | 임자영 |
| 임종은 | 임홍섭 | 장미숙 | 장석만 | 장윤경 | 장정순 | 장철우 | 전경림 | 전민숙 | 전연배 | 전유경 |
| 전홍석 | 전희진(김환수) | 정경란 | 정경란 | 정교화 | 정금자 | 정남운 | 정대현 | 정미경 | 정신애 | 정영석 |
| 정영선 | 정영희 | 정옥실 | 정원희 | 정유석 | 정유순 | 정은숙 | 정인희 | 정한수 | 정현주 | 정호성 |
| 조성숙 | 조소연 | 조순희 | 조인옥 | 조중신 | 조현미 | 주남숙 | 주명희 | 주서현 | 지인선 | 진현숙 |
| 차옥덕 | 천정환 | 채지수 | 최경숙 | 최금희 | 최기홍 | 최동석 | 최명현 | 최보민 | 최양련 | 최연옥 |
| 최영숙 | 최영애 | 최옥경 | 최용득 | 최은경 | 최은미 | 최은순 | 최정운 | 최지너 | 하은주 | 하일호 |
| 한기모 | 한보경 | 한완수 | 한은희 | 한재철 | 허나운 | 허호범 | 홍만희 | 홍보연 | 홍성복 | 홍숙기 |
| 홍순기 | 황성기 | 황재호 | | | | | | | | |



본 상담소실별은 여성을 나타내는 수가 3개고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별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3만 5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성평등교육문화센터 김언정 부장/ ☎ (02) 338-2890~2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상담·열린터 입소문의: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ksvrc@chol.com

■이사 김삼화 문화재단 박찬운 이명숙 이백수 이은미 장정순 장철우 최영애 최보민 최은순 홍순기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애 차옥덕 교육학/김인수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
한인섭 변호사/강기원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남성철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이명숙 이백수 이유정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최은순
최현희 경찰/김강자 이규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혜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
로 이강호 이해성 장현집 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범의학/강신용 권익훈 문국진 서
중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식 황적준 비노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용기 박근자 박종민 손인숙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민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민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
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성 임상병리학/장영옥 문혜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장순 유재혁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차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남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
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 최선연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저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규 강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
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변혜정 이재정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철학/이상
화 정대현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옥 김엘림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부소장 장윤경 ■소장 이미경